

상품지도 매개로 산학협동 중추역할에 공지

지방 포장디자인의 활성화와 이론적 정리에 주력

장상진/연암공업전문대학 공업디자인과 교수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이 지도위원들을 위
촉해 중소기업들
을 중심으로 진행해 온 상품지도는 기술수준의 평준화
추세속에서 포장디자인 및 포장기술의 선진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을 주고자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 행사에서 '한농'의 간마늘, 마늘장조림
GARLIC의 포장디자인을 지도한 장상진 교수는 세종
대학교 산업미술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포장디
자인을 전공, 91년 이후부터 연암공업전문대학 공업디
자인과 교수로 재임하고 있으며, 한국포장디자인학회
이사와 경남산업디자인협회 회장직을 맡아 산업디자
인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이 지원하는 상품지도에 나서게
된 동기에 대해 "1994년에 지도위원으로 위촉된 것을 계
기로 도내 중소기업 상품포장개발에 도움을 주기 시작한
것에서 비롯됩니다. 그동안 좋은 아이디어 제품이 실용
화될 방도가 없어 사장되고 마는 경우가 있었으나 상품
지도 개발을 통해 아이디어가 실제제품화되어 시중에 유통
되는데 커다란 매력을 느꼈지요. 가장 깊은 매력은 산학
이 하나되어 대학이 포장디자인을 창조해 실용제품에 반
영시키는 등 사회의 일익을 담당한다는데서 느끼는 긍지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장 교수는
한국우수포장대전에서 상공부 장관상 등 여러 수상경력
을 가진 포장디자인업계에서 인정받는 실력자이다.

'영농조합법인 한농'의 마늘가공제품 포장디자인 개발
을 위해 장 교수는 한농측과 생산계획을 비롯한 전반적인
부분을 논의했다고 한다. 첫번째 관건인 마늘가공업체 이
미지 부각을 위해 CI를 도입하고 마늘형태의 심볼마크와
캐릭터를 포장에 도입하여 다양한 제품포장(간마늘, 다진
마늘, 마늘장조림, 양념마늘)을 색채구분으로 차별화하였
다. 또한 농민들이 직접 설립한 회사인만큼 제품의 신뢰
성 부여에도 역점을 두기위해 윈도우 포장을 도입하여 소



▲ 지역 포장디자인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장상진 교수

비자들이 제품의 신선도 등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포장재 및 형태는 나일론의 스탠딩파우치를 이용
하였으며 제품이 마늘이라는 점을 감안, 개봉 후 재보관
시 특유의 냄새가 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포장 윗부분
에 지퍼를 달아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사용 후 다른 용도
로의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After Use 기능을 추가한 것
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장 교수는 "조그만 중소기업에
서 포장용기를 만들 때 인쇄의 특성상 포장비가 많이 들
어 포장개발을 하고도 100% 실용화하기 어려운 업체도
상당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 요구됩니
다"라며 이번 포장개발을 통해 느낀 점을 피력했다.

"앞으로도 후학을 지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
니다. 또한 낙후된 지방디자인의 활성화에 앞장설 것이
고 아직까지 많은 부분 정리가 되지 못한 포장디자인의
이론적인 정립에도 정열을 쏟아 포장학계에서 인정받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습니다"라며 앞으로의 포부와 계획을
이야기하는 장 교수의 힘있는 목소리에서 포장디자인의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

윤지은 기자